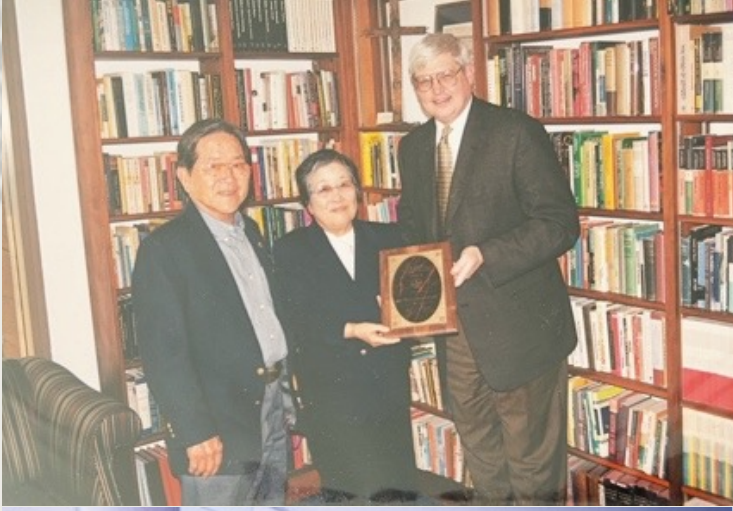




한결같은 믿음의 목회자 박대희 목사 (1924-2017)와 박성숙 사모



박대희牧사는 서울 감리교신학교를 1948년 졸업하였고 서울 국제대학을 1958년에 졸업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신도감리교회를 창립하여 목회(1948-1959)하였다. 지교회로 고양시 벽제감리교회를 1953년 창립, 1956년부터 1959년까지 고양군 오금리감리교회와 함께 두 교회의 창립 목사로서 겸임하였다.

미 연합감리교 십자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워싱턴 D.C. 웨슬리 신학 대학원에 1959년에 입학하여 1962년 졸업하였다.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이 변경되어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시무하였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LA(구 로벗슨)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1990년 California-Pacific Annual Conference에서 은퇴하였다.

은퇴한 후에도 목회와 봉사를 한결같이 하여 1993년 덴버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를 창립하여, 새로운 후임 담임목사를 세우고, 하와이로 돌아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로 섬겼다. LA로 다시 이전하여 LA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로 섬기던 중 2017년 소천하였다.

은퇴 후 박대희 목사는 장흥식 장로와 함께 CST의 한인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 모금을 시작하였다. KEF 모금 운동은 박대희 목사의 소천 후에도 지속되어 2024년 기준 2백만 불 이상이 되었다. 그는 차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해 모범을 보였다. 박대희 목사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 조인균, 이경식, 신영각, 김종일, 이창민 목사 등을 포함한다.

박대희 목사는 설교집 세편을 남겼다 (“한결같이,”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박대희 목사는 박성숙 사모와 1950년 결혼하였다. 박성숙 사모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 박대희 목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지만, 그의 한결같은 봉사와 섬김의 사역은 박성숙 사모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박성숙 사모는 2024년 7월 현재 95세의 연령에도 철저하게 정확한 기억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CST의 한인 장학금을 위해 아직도 십일조 헌금을 하고 있다.

